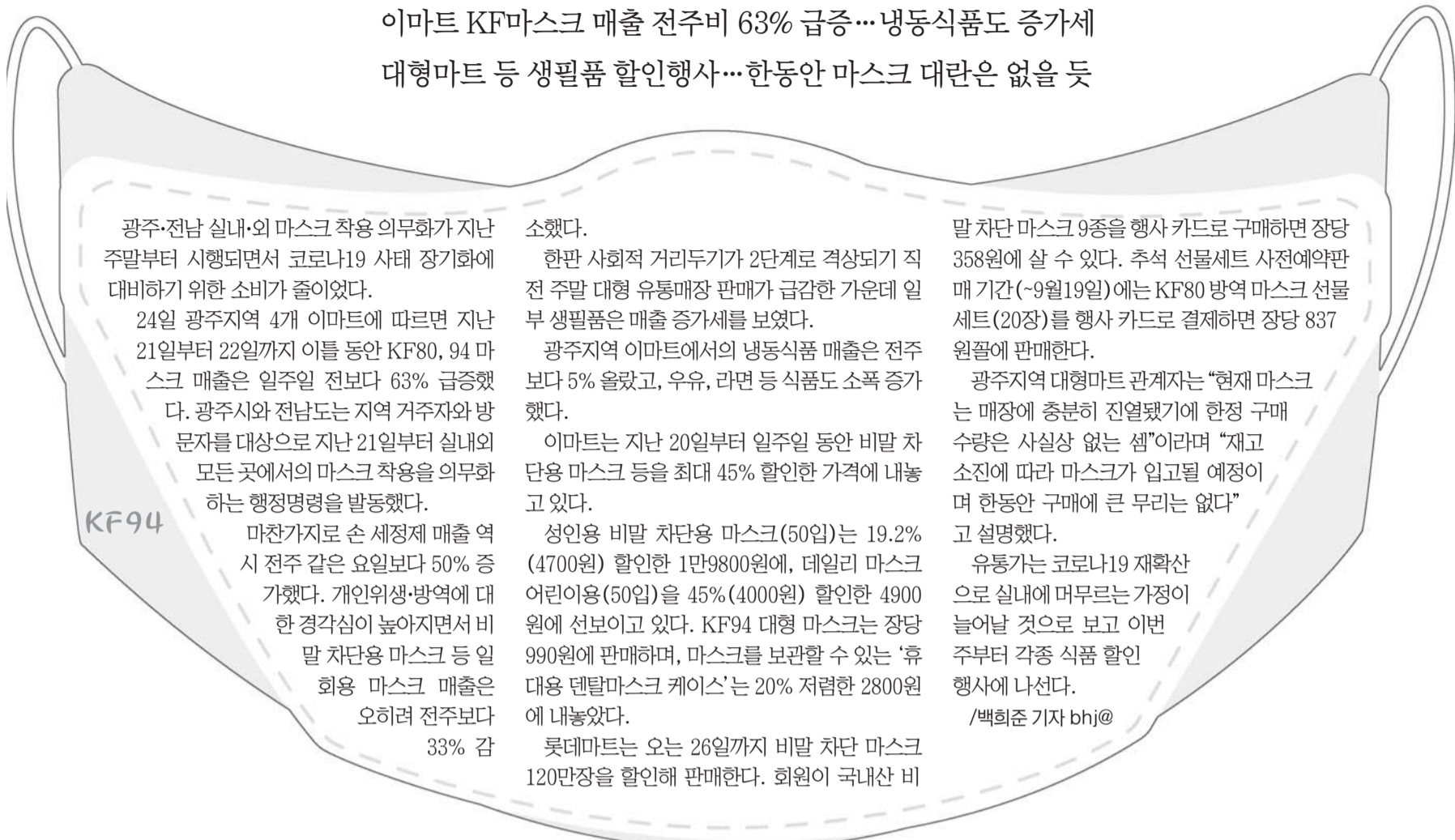


코로나 재확산에 다시 찾는 'KF마스크'

이마트 KF마스크 매출 전주비 63% 급증... 냉동식품도 증가세
대형마트 등 생필품 할인행사... 한동안 마스크 대란은 없을 듯



광주·전남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지난 주말부터 시행되면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한 소비가 줄었다.

24일 광주지역 4개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들 동안 KF80, 94 마스크 매출은 일주일 전보다 63% 급증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지난 21일부터 실내의 모든 곳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마찬가지로 손 세정제 매출 역시 전주 같은 요일보다 50% 증가했다. 개인위생·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비말 차단용 마스크 등 일회용 마스크 매출은 오히려 전주보다 33% 감

소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기 직전 주말 대형 유통매장 판매가 급감한 가운데 일부 생필품은 매출 증가세를 보였다.

광주지역 이마트에서의 냉동식품 매출은 전주보다 5% 올랐고, 우유, 라면 등 식품도 소폭 증가했다.

이마트는 지난 20일부터 일주일 동안 비말 차단용 마스크 등을 최대 45% 할인한 가격에 내놓고 있다.

성인용 비말 차단용 마스크(50입)는 19.2%(4700원) 할인한 1만9800원에, 데일리 마스크 어린이용(50입)을 45%(4000원) 할인한 4900원에 선보이고 있다. KF94 대형 마스크는 장당 990원에 판매하며, 마스크를 보관할 수 있는 '휴대용 덴탈마스크 케이스'는 20% 저렴한 2800원에 내놓았다.

롯데마트는 오는 26일까지 비말 차단 마스크 120만장을 할인해 판매한다. 회원이 국내산 비

말 차단 마스크 9종을 행사 카드로 구매하면 장당 358원에 살 수 있다.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 기간(-9월19일)에는 KF80 방역 마스크 선물 세트(20장)를 행사 카드로 결제하면 장당 837원밖에 판매한다.

광주지역 대형마트 관계자는 "현재 마스크는 매장에 충분히 진열됐기에 한정 구매 수량은 사실상 없는 셈"이라며 "재고 소진에 따라 마스크가 입고될 예정이며 한동안 구매에 큰 무리는 없다"고 설명했다.

유통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실내에 머무르는 가정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번 주부터 각종 식품 할인 행사에 나선다.

/백희준 기자 bhj@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329.83 (+25.24) ↓ 금리(국고채 3년) 0.824 (-0.030)
- ↑ 코스닥 815.74 (+19.73) ↑ 환율(USD) 1189.10 (+2.80)

'코로나 효과' 기업 36% 유연근무 실시

지난해보다 14.3%P 증가

올해 재택근무나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이 14.3%포인트 증가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취업정보포털 사람인이 기업 342개사를 대상으로 '유연근무제 실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36.3%가 '실시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1년 전(22%)보다 14.3%포인트 증가한 수치며, 최근 3년 동안(2017년 19%, 2018년 22.7%, 2019년 22%) 응답률 가운데 가장 높았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대기업은 57.3%였고, 중소기업은 그의 절반 수준인 30.3%에 그쳤다.

유연근무제 실시기업의 절반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올해 2월 이후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직원들의 워라밸 보장을 위해서'(45.2%·복수응답)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42.7%) ▲업무성과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34.7%) ▲주52시간 근로시간

을 준수하기 위해서(16.9%) ▲비용 절감을 위해서(8.9%) 등이 뒤를 따랐다.

유연근무제 유형으로는 시차출퇴근제가 71.8%(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재택근무제(27.4%), 시간단축근무제(23.4%), 집중근무제(8.1%) 등의 순이었다.

전체 직원 중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직원의 비율은 평균 45.7%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39.5%)보다 6.2%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유연근무제에 대한 직원 만족도는 '높다'(45.2%), '매우 높다'(27.4%) 등 10명 중 7명 정도 높은 만족을 나타냈다. 유연근무제 실시 기업의 대다수(96%)가 앞으로도 유연근무제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유연근무제를 실시하지 않는 기업(218개사)들은 그 이유로 '제도 실시를 위한 여건이 부족해서'(54.6%·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들었다. ▲다 부서, 협력사 등과의 협업에 문제가 생겨서(26.6%) ▲업무가 많아 여력이 없어서(16.5%) ▲경영진이 반대해서(11.5%) 등 답변도 있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8월 광주창업포럼

내일 유튜브 생중계

'한국형 그린뉴딜과 창업'

8월 광주창업포럼이 오는 26일 오후 7시 광주동구창업지원센터에서 개최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참석을 자제하는 대신, 유튜브 채널 '광주창업포럼'을 통해 생중계한다.

'한국형 그린뉴딜과 창업'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지난 7월 14일 정부가 확정 발표한 '한국형 뉴딜'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예비)창업자들이 준비할 상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날 포럼 1강은 에너지환경소재 분야의 전문가인 국제기후센터 황철호 연구실장이 '기후 위기를 몰아낼 그린뉴딜'을 주제로 강연하고, 2강은 전주대학교 지역혁신센터 한동승 센터장이 '재생에너지와 자원순환 사업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이야기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창업포럼은 '창업성공률이 높은 광주를 만들자'는 목표로 지역의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진행되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은행, 문화전당지점 1층으로 이전 "고객 중심 경영"



송중욱(가운데) 행장 등 광주은행 임직원들은 문화전당지점 1층 이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다. (광주은행 제공)

지난해부터 9곳 이전... 자동화기기 증설 등 지역 영업력 확대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기존 2층에 위치했던 동구 광산동 문화전당지점을 같은 건물 1층으로 이전했다고 24일 밝혔다.

광주은행은 1층에 점포를 두고 면적을 넓히면서 고객 편의와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은행 점포의 1층 이전은 문화전당지점과, 남구 진월동, 순천연향동 등을 포함해 지난해부터 9곳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신설된 점포는 6곳이다. 24일 현재 광주은행 365영업권은 245곳으로, 지난해보다 1곳 신설

했고, 브랜드 제휴 자동화기기는 전남지역에 3곳 추가하며 146개로 늘었다.

송중욱 행장은 "광주·전남 지역의 2층 이상 영업점을 선별, 1층으로 점진적으로 이전하고 있다"며 "고객중심과 지역밀착경영을 실천함으로써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귀국길 막힌 외국인 노동자 농촌 일자리 준다

최장 3개월간 취업 기회

코로나19 확산으로 귀국길이 막힌 국내 외국인 노동자에게 정부가 최장 3개월 동안 농·어촌 취업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는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됐으나 코로나19로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장 3개월 동안 농·어촌 계절근로 취업 기회를 부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전남지역 계절근로자 수요인원은 고용 25명, 나주 4명 등 29명이다. 전국 36개 지자체가 농업분야 1109명(1개월 31명, 2개월 122명, 3개월 956명), 어업분야 총 265명(3개월) 인력을 신청한 상태다.

이번 지원 대상은 비전문 취업(E-9)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와 체류 기간이 끝났으나 코로나19에 따른 항공편 중단·감축으로 국내에 발이 묶인 외국인 노동자이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4월14일~8월31

일 중 체류 기간이 만료됐거나 만료되는 외국인 노동자로, 법무부로부터 체류 기간 연장 조치를 받은 지 50일 이내이거나 출국 기한 유예를 받아 합법적으로 국내 체류 중인 사람이어야 한다.

계절근로를 원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24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go.kr) 접속이나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시·군별로 인원이 부족한 관할 지역 농·어가에 외국인 노동자를 배정하고 법무부는 그의 체류 자격을 기타(G-1)로 변경해 계절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체류 자격 변경 등에 필요한 수수료(22만원)는 전액 면제된다.

노동부는 국내 취업활동 기간이 끝난 외국인 노동자에게 출국만기보험을 담보로 적립된 보험금의 최대 50%까지 생계비 대출 지원도 하고 있다. 대출을 희망하는 외국인근로자(E-9, H-2)는 외국인 전용보험 콜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파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